

# 신라 하대 불교 정책의 변화와 사찰의 대응

- 이차돈 이야기 창작의 역사적 배경

박 광 연\*

- I. 머리말
- II. 9세기 불교 초전 인물 추모사업의 성격
- III. 9세기 국가와 불교 세력 간의 세력 균형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차돈에 관한 가장 빠른 시기의 기록은 817년에 만든 <백률사석당기>이고, 『삼국유사』에도 元和 연간(806-820)에 승려 일념이 쓴 <축향분예불결사문>을 신고 있다. 본고는 9세기에 들어 신라 불교계에서 왜 이차돈 이야기를 창작하고 결사 등의 행사를 열어 그를 기억하려 하였는지 그 배경을 추적한 글이다.

애장왕대(재위 801-809)를 전후한 시기에 이차돈을 비롯하여 아도, 안흥(안함), 원효, 의상, 경흥, 승전 등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공인하는 과정에서 공이 많았던 인물이나 정착 단계에서 덕망이 높았던 고승을 기념하는 비석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이들 고승을 주인공으로 하는 비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사학전공 교수 / kypark@dongguk.ac.kr

은 왕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공의 영험한 자취나 국가와의 연관성, 국왕의 칭송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라 하대 들어 조정은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갖추어가는 사찰 세력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9세기 전반 불교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축소하였고, 사찰의 신축 금지, 사찰에서 비단·금은 사용 금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왕은 불교 세력이 진골들과 결속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던 것이다. 각종 금지 조치에 사찰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하였을 것이다. 승려들이 주도하여 국왕의 은덕을 칭송하고 사찰의 유구성과 영험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창작하고 이를 결사 등을 통해 집단 기억화함으로써 사찰의 후원을 유도하였다. 이차돈 이야기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이함이 더욱 강조된 형태로 널리 유포되게 되었다.

- ◆ 주제어 —————
- 백률사, 흥륜사, 이차돈, 애장왕, 헌덕왕, 흥덕왕, 정법전, 성전사원, 영험, 결사, 고승비

## I. 머리말

오늘날의 栢栗寺는 영험 있는 기도처로 유명하다. 고려시대에도 靈異가 많은 사찰로 이름이 나 있었다.<sup>1)</sup> 백률사가 ‘영험이 있는 성스러운 장소(靈驗聖所)’라는 이미지는 『삼국유사』에서부터 드러나 있는데, 크게 두 이야기가 활용되고 있다. 첫째는 국선 부례랑을 구출해준 백률사 관음보살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백률사에 처형당한 이차돈의 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부례랑 이야기에는 무열왕권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신라의 새로운 국보로 대두된<sup>2)</sup> 만파식적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야기 창작자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부례랑 이야기는 등장 인물인 효소왕(재위 692-702)의 활동 이후에 만들어졌을텐데, 그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다. 반면 이차돈 이야기는 ‘元和 연간(806-820)’에 만들어졌음이 분명하나,<sup>3)</sup> 오히려 이 시기에 이차돈 이야기를 유포한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9세기 전반 신라에서는 이차돈뿐만 아니라 불교 수용 및 초기 정착 단계에서 활약한 인물들에 대한 추모가 빈번하게 행해졌다. 때문에 9세기에 이차돈 이야기나 백률사 영험성소 이미지가 창작된 것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법흥왕, 이차돈, 흥륜사는 신라의 불교 공인을 상징하는 세 단어이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달리 불교의 수용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강했기 때문에 이차돈의 희생이 불가피하였다고 『삼국사기』 ‘법흥왕’, 『해동고승전』 ‘석법공전’, 『삼국유사』 ‘원종흥법염축멸신’, <백률사석당기> 등의 여러 자료에서 말하고 있다. 때문에 일찍부터 신라의 불교 전래와 수용을 논할 때면 이차돈은 빠지지 않았다.<sup>4)</sup> 이차돈에 대한 평가는 다양각

1) 『三國遺事』 卷3, 塔像4, 三所觀音衆生寺栢栗寺敏藏寺.

2) 김상현,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1981, 12~16쪽.

3) 이차돈의 실존 여부를 의심한다거나 이차돈의 죽음이 흥륜사의 창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9세기 전반에 이차돈을 기억하는 사회적 행위가 있었음을 가리킨다.

4) 이기백, 「삼국시대의 불교 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 6, 1954 ; 이병도,

색이다. 이차돈의 순교가 사실이 아닌 설화에 불과하고, 이차돈도 실존 인물이 아닌 허구의 존재라는 견해가 있고,<sup>5)</sup> 신심 깊은 젊은 일반신도의 희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6)</sup>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백률사석당기>에서 모두 이차돈을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 사료를 비교 분석하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다.<sup>7)</sup> 이 과정에서 흥륜사 창건을 둘러싼 갈등의 주체가 누구인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異見들은 있었지만, 이차돈 이야기가 6세기 불교 수용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서사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이처럼 이차돈 이야기의 서사 구조, 이에 근거한 신라 초전 불교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이차돈을 추모하는 사업이 9세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행해진 배경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주지하듯이 현존하는 이차돈에 관한 가장 빠른 시기의 기록은 <백률사석당기>, 일명 <이차돈순교비>의 명문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차돈을 기념하는 비를 만든 것이 817년(원화 12)이라 하고,<sup>8)</sup> 『元和帖』에서는 818년(원화 13)이라고 한다.<sup>9)</sup> 또 원화 연간(806-820)에 南澗寺 승려 一念이 <鬮香墳禮佛結社文>(이하 <결사문>이라 줄임)을 썼고,<sup>10)</sup> 興輪寺 승려 영수는 매달 5일

---

「신라 불교의 침투 과정과 이차돈 순교 문제의 신고찰」, 『학술원논문집』 14, 1975 ; 신종원, 「신라의 불교 전래와 그 수용과정에 대한 재검토」, 『백사학보』 22, 1977 ; 深津行徳, 「아시아에서의 초기 불교수용의 諸相-흥륜사창건설과 이차돈 순교의 의미」, 『신라문화』 20, 2002 ; 이도흠, 「이차돈의 가계와 신라의 불교 수용」, 『한국고대사탐구』 6, 2010 등이 있다.

5) 문경현, 「新羅佛教肇行攷」,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4, 1983.

6) 이봉춘, 「흥륜사와 이차돈의 순교」, 『신라문화』 20, 2002.

7) 최광식, 「이차돈설화에 대한 신고찰」, 『韓國傳統文化研究』 1, 1985 ; 조경철, 「이차돈의 순교연대에 대한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0, 2015 ; 이도흠, 「이차돈 관련 기사의 비교 분석 및 맥락적 해석」, 『한국불교학』 85, 2018.

8)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 厭鬮滅身, “降有國統惠隆·法主孝圓·金相郎·大統鹿風·大書省真怒·波珍喰金巖等建舊瑩樹豐碑 元和十二年丁酉八月五日 即第四十一憲德大王九年也.”

9) 『元和帖』, “元和十三季戊戌八月十日”(한국사데이터베이스 유리필름 GF3194)

10)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 厭鬮滅身, “元和中 南澗寺沙門一念 撰鬮香墳禮佛結社文 載此事甚詳.”

이차돈의 무덤에 예불하는 향도는 모아 흥륜사에서 법회를 열었다.<sup>11)</sup>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왜 원화 연간에 이루어졌던 것일까? 9세기 들어 백률사를 비롯한 왕경의 사찰에서 이차돈의 죽음을 추모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9세기 전반에 많은 고승비가 제작되었는데, 이차돈을 기념하는 비를 만든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필자의 백률사 이차돈 영험담에 대한 의문은 9세기 전반에 불교 세력들이 신라 불교사의 초창기 인물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이차돈의 사례를 매개로, 9세기 전반 신라 불교계의 집단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를 추적해보도록 하겠다.

## II. 9세기 불교 초전 인물 추모사업의 성격

栢栗寺는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금강산에 있는 절로, 경주에서는 ‘3승8怪’<sup>12)</sup>의 명소 가운데 한 곳이자 영험이 뛰어난 곳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차돈 관련 기록은 다양한 시간층이 뒤섞여 있어 시간순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삼국유사』 찬자도 자료의 이질성을 인식하고 있다. 『삼국유사』 권3, <흥법>, ‘원종흥법업축멸신’에는 세 버전의 이차돈 이야기가 실려 있다. 「신라본기」, <결사문>, 그리고 鄉傳이 그것이다. 『삼국유사』 찬자는 <결사문>으로 전체 줄거리를 구성하고, 향전을 통해 부연 설명하거나 차이나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11)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 厭觸滅身, “興輪寺永秀禪師 結湊斯塚禮佛之香徒 每月五日爲魂之妙 願營壇作梵 又鄉傳云 鄉老每當忌旦 設社會於興輪寺.”

12) 백률사는 경주의 ‘3승8怪’ 이야기 가운데 옥적(만파식적), 화주, 백률송순 세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백률사 관음보살과 만파식적의 영험으로 부레량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고, 선덕여왕의 화주를 백률사에 보관하였다고 하고, 백률사의 소나무는 가지를 치면 새 순이 돌아난다고 한다. 강석근, 「백률사 설화와 제영에 대한 연구-이차돈 순교 설화와 ‘백률송순’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32, 2012 참조.

가) 대왕이 분노하여 그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니 有司가 (그를) 묶어 관아로 끌고 왔다. 사인이 발원하고 獄吏가 목을 베니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다. 【향전에는 사인이 맹세하기를, “大聖法王께서 불교를 일으키고자 신명을 돌보지 않고 인연을 모두 버리니 하늘에서는 상서를 내려 사람들에게 두루 보여주소서”라고 하니, 이에 그의 머리가 날아가서 金剛山 꼭대기에 떨어졌다고 하였다.】<sup>13)</sup>

나) 드디어 북산의 서쪽 고개 【즉, 금강산이다. 傳에서는 머리가 날아가 떨어진 곳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밝히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에 장사지냈다.<sup>14)</sup>

<결사문>에서는 이차돈의 죽음, 이적, 그리고 사후 애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반면 향전에서는 머리가 떨어지고 장사 지낸 장소인 금강산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 ‘여기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今不言何也)’, 즉 금강산이 향전에는 나오는데, 지금[今] 즉 <결사문>에서는 말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한다.

결사문	향전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다	머리가 날아가서 금강산 꼭대기에 떨어졌다
북산 서쪽 고개에 장사지냈다	금강산. 머리가 날아가 떨어진 곳에 장사지냈다

<결사문>에서는 이차돈을 처형하였을 때 흰 젖이 나왔고, 북산 서쪽에 장사지냈다고만 말한 반면, <향전>에서는 처형당한 목이 날아가 금강산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추가되었다. 『삼국유사』 탐상편 ‘백률사’의 “鷄林의 북쪽 산을 金剛嶺이라고 하는데 산의 남쪽에 栢栗寺가 있다.”<sup>15)</sup>는 기록은 <향전>의 이야기가 사회에 유포되면서 백률사에 대한 일

13)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 厭羈滅身, “大王忿怒勅令斬之, 有司縛到衙下. 舍人作誓, 獄吏斬之, 白乳湧出一丈 [鄉傳云, 舍人誓曰, 大聖法王欲興佛教, 不顧身命多却結緣, 天垂瑞祥遍示人庶. 於是其頭飛出落於金剛山頂云云.]”

14)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 厭羈滅身, “遂乃葬北山[即金剛山也. 傳云頭飛落處因葬其地, 今不言何也]之西嶺”

15) 『三國遺事』 卷3, 塔像4, 三所觀音衆生寺栢栗寺敏藏寺.

반적 이해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금강산’은 『화엄경』 80권본에 나오는 ‘海의 금강산에 범기보살’이 있다는 구절에서 이름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태백산맥 북부의 금강산에 범기보살(담무갈보살)이 머물고 있다고 믿었는데, 주목할 점은 무인정권기까지도 이 산은 皆骨山, 楓嶽山으로 주로 불렸고, 원간섭기 이후 금강산이 대표 명칭이 되었다는 것이다.<sup>16)</sup> 신라 하대 이후 오대산, 천관산 등의 명산에 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신앙이 유포되면서<sup>17)</sup> 전국의 산에 불교식 이름을 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는데, 유명하지만 멀어서 가지 못하는 오대산, 금강산의 명칭을 인근의 산에 갖다 붙이기도 하였다. 경주의 북산이 금강산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면, <향전>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은 고려시대의 일이라 볼 수 있다.

9세기에 행해진 이차돈 추모사업의 성격은 당대의 사실만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신라시대에 기록된 이차돈 관련 사료는 <백률사석당기>뿐이다. 하지만 <백률사석당기>의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9세기 전반의 왕경 불교계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는 것은 역시나 『삼국유사』 ‘원종흥법염축멸신’이다.

원화 연간에 남간사의 사문 일념이 <축향분예불결사문>을 지었는데, 이 사실을 매우 자세히 실었다. (중략) 이에 집집마다 예를 행하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고, 사람마다 도를 닦으면 마땅히 불법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뒤에 國統 惠隆, 法主 孝圓과 金相郎, 大統 鹿風, 大書省 眞怒, 波珍浪 金巖 등이 옛 무덤을 수축하고 큰 비를 세웠다. 원화 12년 정유(817) 8월 5일, 즉 41대 헌덕 대왕 9년이었다.

홍륜사의 永秀禪師가 무덤에 예불하는 香徒를 모아서 매달 5일에 혼의 妙願을 위해 단을 모으고 범패를 지었다.<sup>18)</sup>

16) 김창현, 「고려시대 금강산과 그 불교신앙」, 『지역과 역사』 31, 2012, 201~211쪽.

17) 박광연, 「불국토」, 『테마한국불교 3』, 동국대출판부, 2015 참조.

18)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厭觸滅身.

南澗寺 승 일님이 결사문을 지었고, 興輪寺 승 영수가 향도를 모아 매월 5일 예불을 올렸다고 한다. 이차돈의 무덤을 정비하고 추모비도 세웠는데, 이때 國統, 大書省, 大統의 승관을 지닌 승려들이 참여하였고, 재가 단월로 波珍浪 金嶷이 함께 하였다.<sup>19)</sup> 주목할 점은 이 기록에 栢栗寺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백률사와 이차돈의 상관성은 다음의 두 가지 점뿐이다. 첫째는 이차돈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刺楸寺’<sup>20)</sup>가 바로 백률사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차돈 추모비가 백률사 부근에서 발견되어 <백률사석당기>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자추사에서 刺가 갖[栢]이고, 楸가 밤[栗]이므로 바로 백률사라는 견해도 있지만<sup>21)</sup> 자추사와 백률사가 별도의 장소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22)</sup> <백률사석당기>의 발견 장소 또한 백률사 경내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sup>23)</sup> 그렇다고 해서 이차돈이 백률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백률사와 이차돈이 결합된 것이 언제부터인가를 따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백률사는 7세기 후반부터 관음보살상의 영험으로 명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효소왕 때(692-702) 때 국선인 부례랑이 北狄에게 잡혀가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sup>24)</sup> 백률사 관음보살의 영험 덕분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이처럼 7세기 후반까지 백률사는 관음보

---

19) 金相郎이 출가자인지 재가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문장의 순서상 김상랑이 法主였을 것 같다. 김상랑의 김이 성이라면 승려 이름에 성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삼척 흥전리 절터에서 발굴한 탑비의 주인공이 김씨 성의 신라 승려로 밝혀져 흥미를 끈다(“흥전리 사지 탑비 주인공은 김씨 성 신라 승려”, <불교닷컴> 2020.3.11. 기사).

20)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厭讎滅身, “遂乃葬北山之西嶺 內人哀之卜勝地造蘭若 名曰刺楸寺.”

21) 박방룡, 「신라 왕경의 사찰조영」, 『미술사학』 13, 1999, 120쪽.

22) 한국불교연구원, 『신라의 폐사 I』, 일지사, 1974, 74~77쪽.

23) 김태형, 「이차돈 순교 유적와 유물에 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11, 2011, 260~261쪽.

24) 나라의 보물인 萬波息笛이 등장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 백성들에게 3년 간의 조세를 면제해주고, 백률사 주지를 성전사원인 봉성사로 옮기게 하였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사건이라 파악하였다.



살의 聖地로서 알려졌을 뿐, 이차돈과 그의 영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경덕왕(재위 742-765)이 백률사에 행차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백률사 아래의 빈터에 四面佛이 묻혀 있어서 그것을 파내고 굴불사라는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만 할 뿐,<sup>25)</sup> 신라 최초의 사찰이라든지 이차돈의 순교라든지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백률사와 이차돈의 결합은 빨라도 혜공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9세기 전반 이차돈 추모 사업을 주도한 이들은 남간사의 일념, 흥륜사의 영수, 그리고 백률사의 승려 등 불교계 인물이었고, 여기에 동참한 이들도 중앙 승관을 지닌 승려들이 대부분이었다. 왕경을 무대로 진행된 佛事였던 것이다. 9세기 들어 중고기 불교사의 재인식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만큼, 많은 고승비들이 만들어졌다. 애장왕(재위 800-808) 연간에 세워진 <高仙寺誓幢和尚碑>가 그 시작이고, <安舍碑>, <神行禪師碑>, <浮石本碑>, <阿道碑>, <憬興碑>, <勝詮碑> 등이 있다.<sup>26)</sup>

<고선사서당화상비>는 元曉(617-686)가 주인공이다. 원효의 증손인 薛仲業이 779-780년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金彦昇(?-826)의 후원으로 건립하였다.

문무대왕이 나라를 다스리자 일찍이 (왕의) 천부적인 덕성 덕분에 나라가 평안 해졌다. 성운을 천지에 베풀려 하니 공이 막대하여 다 펼 수 있다. 백성들의 하늘과 땅이 되고 (결락)이 되었다.<sup>27)</sup>

識記와 (결락) 外書 등이 세상에서 배척당하였다.

산승의 술잔 (결락) 토지의 신을 서서 기다리며 다시는 옮기지 않았으니, 이것은 본성의 게으름을 드러낸 것이다. 여인이 세 번 절하자 천신이 그를 가로 막았다....

대사의 신묘한 헤아림은 형상화할 수 없고 기미를 알아차림은 더욱 멀다.<sup>28)</sup>

25) 『三國遺事』卷3, 塔像4, 四佛山掘佛山萬佛山.

26) 박승훈, 「신라 하대 전기 고승추모비의 건립」, 『한국고대사연구』 25, 2002 참조.

27) <高仙寺誓幢和尚碑>, “文武大王之理國也 早應天成 家邦□晏 恩開大造 功莫能宣. 爲蠢動之乾坤 作黔(마멸)□啓.”

28) <高仙寺誓幢和尚碑>, “□識記□□外書等 見斥於世□.” “山僧提酒 (마멸) □后土立待

비문에서는 문무왕의 은덕과 원효의 영험한 자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안함비>도 하대 전기에 조성되었고, 안함의 국가와 관련된 예인들이 부각되어 있다. 또한 813년(헌덕왕5, 원화8)에 김헌정이 찬한 <단속산신행선사비>에서는 신행선사가 안홍(안함) 형의 증손임을 특기하고 있고, 아울러 ‘부처께서 법을 국왕에게 부촉하였다’라고 하여 국왕을 강조하고 있다. <백률사석당기>의 내용도 유사하다. <백률사석당기>에서는 법흥왕의 불법에 대한 강한 의지, 이차돈의 처형 시 나타난 神異(목 가운데에서 흰 우유가 한 자나 솟구치고, 이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흔들렸다)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이차돈 혼의 ‘妙願’<sup>29)</sup>을 老魄과의 대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幼魂과 노백의 대화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신을 복산에 안장하고 서산에 사당을 세웠다. (중략)<sup>30)</sup> 이때 老魄이 채찍을 들고 배회하며, 읍가에 이르러 옛 무덤을 바라보았다. 그 가운데 한 무덤에서 幼魂이 홀연히 나왔다. 노백이 조문하며 말하였다. “슬프구나! 그대여. 옛 사람의 무덤을 단지 보다가 문득 해후하였는데, 꿈에 본 아들의 혼과 같구나.” 혼이 대답하였다.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옛날에 어떤 왕이 불법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나는 염□로서 왕께 ……”<sup>31)</sup>

이상의 9세기 전반 건립된 비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 수용 초기의 인물(아도, 이차돈, 안홍)이나 7세기 후반 불교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고승(원효, 의상, 승전 등)을 주인공으로 하

更不曾移 此顯冥心之倦也. 女人三禮 天神遮之.” “大師 神測未形 知機復遠.”

29)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厭觸滅身, “爲魂之妙願營壇作梵.”

30) 중략 부분에 다음의 구절이 있다. “저 법흥왕이 즉위한 대동 15년 을미년(549) 이래로 지금 당 영태 2년 병오년(766)에 이르기까지 253년이다(彼法興王卽位大同十五乙未年來 達今於唐永泰二年丙午 二百五十三)” 학계에서는 <백률사석당기>의 내용이 『원화첩』(이기백 편, 『한국상대고문서자료집성』, 일지사, 1987, 35~38쪽)과 동일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남동신 등). 그렇다면 『원화첩』에서는 비 건립을 818년이라고 하였는데 이 문장에 나오는 ‘승’ ‘영태2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법흥왕 재위기부터 경덕왕 재위기까지의 연수를 헤아린 것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3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백률사석당기> 해석문 참조.

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주인공 및 교화를 받은 재가자들의 영험한 자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셋째, 주인공의 국가와 관련된 행적을 강조하거나 국왕을 칭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성격 때문에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비 건립의 주체를 국가(국왕)이라고 보았다. “<이차돈순교비>에서 왕명을 받아 건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불교계의 우두머리인 국통과 속관 등이 주관하는 것에서 보아 국가로부터 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2)</sup>거나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강하게 깃들여 있다.”<sup>33)</sup>라고 보았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들 비를 국왕이 세웠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이차돈 추모사업의 주도 세력 가운데 흥륜사가 있다.<sup>34)</sup> 이차돈의 죽음으로 완공된 신라 최초의 사찰이 흥륜사라는 점에서 참여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륜사 금당에 10명의 성인상을 모신 것이 신라 하대의 일이고, 그 선택된 10명의 성인(아도, 염축, 혜숙, 안함, 의상[동쪽]과 표훈, 사파, 원효, 혜공, 자장[서쪽])<sup>35)</sup>이 신라 하대 들어 만들어진 고승비의 주인공들과 상당히 겹친다는 점에서 다른 사정을 생각해볼게 된다. 흥륜사 금당에 이 10명의 소조상을 만들어 모신 것이 ‘국가에서 그들의 업적을 추모하여 사표로 삼고자 한 것이다’ ‘전륜성왕의 정법통치를 실천함을 표방함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국가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sup>36)</sup>라고 하여 국가 차원의 사업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러한 추모 사업이 국왕의 의도에 의한 국가 차원의 사업이었다면, 국왕들이 불교 수용 초기의 인물들을 갑자기 내세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라 하대 들어 신라 불교사의 초창기를 장식했던 인물들을 추모하는 사업을 주도한 이가 과연 국왕이었을까.

32) 박승훈, 앞의 논문, 2002, 234쪽.

33) 최홍조,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목간과 문자』 11, 2013, 227쪽.

34) 남간사의 경우, 관련 자료가 없어서 9세기의 사찰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35) 『三國遺事』 卷3, 興法3, 興輪寺金堂十聖.

36) 박승훈, 「신라 하대 전기 흥륜사 금당 십성의 봉안과 미륵하생신앙」, 『한국사상사학』 11, 1998.

### Ⅲ. 9세기 국가와 불교 세력 간의 세력 균형

신라 사회에 불교가 전래된 후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3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향유층이 확대되었다. 아시아에서 사찰이 증가하는 모습은 서구에서 수도원이 확산되는 양상과 유사하다. 서구에서 수도사적 삶이 짧은 시간 안에 급속히 전파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귀족 계급에서의 수용을 꼽는다. 수도사들은 일선에서 물러난 로마 귀족들, 부유하고 세력 있는 조력자를 많이 만남으로써 명망 있는 계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37)</sup> 신라에서 불교는 법흥왕, 진흥왕 등 국왕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수용되었고, 점차 왕경의 많은 진골들과 지방의 유력자들이 적극적인 단원이 되었다.

몹소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승려들은 단월의 보시에 의해 공동체를 유지한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지닌 단월의 후원을 받았기에, 공동체 내부의 질서(律)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불교 공동체였지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sup>38)</sup> 오히려 공권력의 비호와 통제 하에 세력을 키워나갔다. 백제, 고구려, 당과의 전쟁이 끝나고, 신라에서는 불교계 후원을 공식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成典寺院(사천왕사, 봉성사, 감은사, 봉덕사, 봉은사, 영묘사, 영흥사)의 지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성전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sup>39)</sup> 국가의 관리가 성전이 설치된 사찰에 파견되어 불교 관련 업무를 보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신라 중대 왕경의 사찰에서 행해진 여러 활동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다.

37) 키를 수소 프랑크 지음, 최형걸 번역,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은성, 1997(2018), 85쪽.

38) 박광연, 「불교 정책과 중단 : 조선은 고려와 다르다」, 『역사비평』 123, 2018, 265~266쪽.

39) 이영호, 「신라 중대 왕실사원의 관사적 기능」, 『한국사연구』 43, 1983 ; 채상식, 「신라통일기 성전사원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경계』 8, 1984 ; 박남수, 「통일신라 사원성전과 불사의 조영체계」, 『동국사학』 28, 1994 ; 윤선대, 「신라 중대의 성전사원과 국가의례」, 『신라문화계학술발표논문집』 23, 2002 등.

그런데 시간이 흘러 불교 세력이 점차 성장하면서 국가와 무관하게 사사로이 佛事를 행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sup>40)</sup> 성덕왕대의 金志誠은 은퇴 후 甘山寺를 세우고 석조아미타불상과 석조미륵보살상을 만들었다(719~720). 사찰 창건의 주체가 국가인가 개인인가의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곳이 불국사와 석불사다. 불국사·석불사가 재상 김대성 집안의 재력만으로 만든 개인 사찰인지, 설계 단계부터 국왕의 의지와 후원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일찍이 국찰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sup>41)</sup> 최근에는 개인 사찰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김대성 집안이 두 사찰을 짓기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sup>42)</sup> 이렇듯 8세기에 창건된 사찰의 창건 세력을 논하게 되는 것은, 이 시기가 되면 제도적 후원 없이도 불교계가 자생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원성왕이 즉위한 후(785) 政官을 政法典으로 바꾼 것은 이러한 불교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으로 승관을 두고 才行 있는 승려를 선발하였다고 한다.<sup>43)</sup> 정법전의 정책 방향은 어떠했을까? 승려를 관리로 둔 것은 커져가는 불교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일까, 아니면 견제하려는 것일까? 정법전 배치 승려들이 왕명을 받아 佛事 활동을 감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불교계를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본 해석이<sup>44)</sup> 애장왕대(재위 800-808) 이후 국가

40) 개인의 보시에 의한 사찰 창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원효는 출가 후 자신이 살던 집을 初開寺로 만들고, 자신이 태어난 밤나무 옆에도 裳羅寺를 세웠다(『삼국유사』 권4, 의해5, 원효불기)고 한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7세기 전반에는 개인의 사찰 창건이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다.

41) 황수영, 「石窟庵의 創建과 沿革」, 『역사교육』 8, 1964.

42) 남동신, 「천궁(天宮)으로서의 석굴암(石窟庵)」,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2014, 84~127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43) 『三國史記』 卷40, 雜志9, 職官下, “政官(或云政法典) 始以大舍 一人·史二人爲司, 至元聖王元年(785), 初置僧官, 簡僧中有才行者, 充之. 有故則滿, 無定年限” ‘初置僧官’이라 하였지만, 승려가 관리로 임명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44) 박승훈, 「신라 원성왕의 정법전 정비와 그 의의」, 『진단학보』 80, 1995, 47쪽. 한편 원성왕은 정법전을 통해 정법 치국의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본 견해도 있는데(신선혜, 「원성왕대 정법전의 개편과 정법치국의 이념」, 『신라사학보』 43, 2018), ‘정법치국’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원성왕이 불교계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인지

의 불교 정책과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sup>45)</sup>

『삼국사기』를 보면, 애장왕 때 불교계에 대한 몇몇 조치가 이루어진다. 805년(애장왕 6)에 公式 20여 조가 발표되었다.<sup>46)</sup> 여기에 성전사원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성전의 관원인 衿荷臣의 명칭이 승으로 바뀌었다. 행정 관직의 명칭을 통일하면서 성전의 금하신·上堂과 같은 신라식 명칭을 승·卿의 한식으로 고쳤다. 경덕왕 때 성전을 監府로, 성전의 관원인 금하신을 監令·檢校使로, 상당을 卿·副使로, 赤位를 監·判官으로, 靑位를 主簿·綠事로 바꿨다가 혜공왕 때 복고되었고, 애장왕의 명으로 다시 경덕왕 때로 돌린 것이다.<sup>47)</sup> 관원의 증감 조치도 있었는데, 집사성·병부·창부·예부·승부·사정부의 관원은 늘어난 반면, 사천왕사성전이나 봉덕사성전의 관원은 줄었다. 관원의 축소는 지위의 격하를 의미한다.<sup>48)</sup> 애장왕 6년 이후 중대의 성전사원들은 규모가 축소되고, 반면에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게 된 승복사, 황룡사에는 새롭게 성전이 설치되었다.

806년(애장왕 7)에는 새로운 사찰의 건립을 금지하는 교서가 발표되었다.

교서를 내렸다. “새로이 佛寺를 세우는 것을 금하고, 오직 수리하는 것만 허락한다. 또 비단으로 佛事를 행하고, 금으로 용기를 만드는 것을 금한다. 마땅히 담당관청에 널리 알려 시행하게 하라.”<sup>49)</sup>

---

분명하지 않지만, 국가의 정책과 불교계의 위상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동의하기 어렵다.

45) 고려시대의 경우, 광종대에 승과·승직 체계를 마련하고 현종·정종 대에 각종 불교 제도를 정비한 이후 불교 집단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통제를 강화했다. 고려의 僧錄司는 국왕과 관료들의 정책 의지를 불교계 전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원간섭기 이후 크게 변화한다(박광연, 앞의 논문, 2018, 266쪽).

46)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6년 秋8월

47) 『三國史記』 卷38, 雜誌7, 職官上. 이 기록에는 연도가 없지만, 애장왕대 관계 개혁이 모두 재위 6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같은 해로 보아도 무방하다(김동수, 「신라 헌덕·흥덕왕대의 개혁정치」, 『한국사연구』 39, 1984, 30~31쪽).

48) 윤선대, 「신라의 사원성전과 금하신」, 『한국사연구』 108, 2000, 17~18쪽.

사찰 창건을 금지하고, 불교 행사에 비단이나 금은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표면적으로는 사찰의 사치 풍조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다. 이는 834년(흥덕왕 9) 흥덕왕의 교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명확해진다.

교서를 내렸다. “사람에게는 위아래가 있고, 지위에는 높고 낮음이 있어 명칭과 법례가 같지 않고, 의복 또한 다르다. 풍속이 점차 경박해지고,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를 부린다. …… 감히 옛법[舊章]에 따라 명령을 내리니 만약 고의로 범한다면 진실로 형벌이 있을 것이다. ……”<sup>50)</sup>

흥덕왕(재위 826-836)은 신분에 따라 의복, 수레, 용기, 주택에 대한 규제 조항을 제정하였다. 이 가운데 용기에 대한 부분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1)</sup>

<표> 흥덕왕의 用器 사용 규정

진골	金, 銀, 鍍金 금지
육두품·오두품	金, 銀, 鍍金, 鍍銀 금지
	虎皮, 毬毬, 毬毬 금지
사두품·백성	金, 銀, 鍍石(낫쇠), 朱裏平文物 금지
	毬毬, 毬毬, 虎皮, 大唐毬 금지

49)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7년 3월, “下教 禁新創佛寺 唯許修葺. 又禁以錦繡爲佛事 金銀爲器用. 宜令所司 普告施行.”

50) 『三國史記』 卷33, 雜志2, 色服·車騎·器用·屋舍.

51) 『三國史記』 卷33, 雜志2, 器用, “眞骨 禁金·銀及鍍金. 六頭·五頭品 禁金·銀及鍍金·銀 又不用虎皮·毬毬·毬毬. 四頭品至百姓 禁金·銀·鍍石·朱裏平文物 又禁毬毬·毬毬·虎皮·唐毬等.”

흥덕왕이 진골들에게 금·은·도금의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진골에 대한 왕족의 우위를 표방하기 위함이다. 중대까지만 하더라도 금·은은 왕족의 전용물이었는데, 당에서 8세기 중반 강남에서의 금은기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것이 海商들에 의해 신라로 전해지면서 8세기 후반 이후 신라 진골들의 금은기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sup>52)</sup>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806년의 사찰에 대한 각종 규제도 진골들에 대한 규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즉 국왕과 국왕이 허용하는 친족이 행한 불사라면, 굳이 비단을 사용하지 말라, 금은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왕족이 아닌 다른 진골이 단월로 참여하는 불사에 왕족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이다.

진골들이 특정 사찰 또는 승단(이하 ‘사찰 세력’이라 표현함)과 유착되어 가는 현상은, 국왕으로서는 경계해야 할 일이었다. 하대의 사찰 세력은 중대와 비교하여 그 자생력이 급성장하였다. 정통적으로 별도의 규범[律]과 별도의 공간에 기반한 독자성을 갖춘 사찰에 시주 받은 토지와 재물이 증가하였고, 출가 승려 외에도 투탁하여 살아가는 이들(正人 등)이 늘어났고, 스스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병력도 갖추게 되었다. 사찰 세력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애장왕 때 사찰의 신축 금지, 사찰에서의 비단·금은 사용 금지는 진골과 사찰 세력이 결합함으로써 왕실의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 숨은 목적이었다.<sup>53)</sup>

12세에 즉위한 애장왕은 숙부인 김언승의 섭정을 받았다. 애장왕의 명으로 내린 교서에는 상대등 김언승의 의지가 담겼다고 봄이 일반적이

---

52) 고태진, 「新羅 興德王代 金銀器 禁令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39~60쪽.

53) 김동수는 이 시대 사원이 단순한 신앙의 도량만이 아니고, 막대한 경제력과 승병조직을 가진 귀족세력의 배경처가 되고 있어서 귀족들의 원찰 건립은 신앙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세력기반의 확대라는 측면도 작용되었다고 하면서, 애장왕의 교서가 귀족세력의 사원세력과의 결합을 억제코자 한 것이라 보았다. 김동수, 앞의 논문, 1984, 33쪽.



다. 김언승은 809년(애장왕 10) 애장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다. 그가 헌덕왕(재위 809-826)이고, 그를 보좌했던 동생 김수종이 바로 흥덕왕(재위 826-836)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헌덕왕·흥덕왕대의 불교 정책이 불교계에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고승 추모비들이 헌덕왕·흥덕왕 때 많이 제작된다. 고승들의 소조상 조성과 추모비 건립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政法典의 설치로 인한 불교계의 반발을 무마하려 하였다<sup>54)</sup> 한다. 사찰의 불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덕왕·흥덕왕 대의 불교 정책은 애장왕대와 마찬가지로 왕실의 위상을 진골과 사찰 세력 위에 두고자 하는 의도에서, 왕족 후원 사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들을 견제·외면하는 방향으로 일관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듯하다. 흥덕왕 9년의 교서에 사찰에서의 금은기 사용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애장왕대에 반포된 교서가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국가의 지원의 끊기거나 줄어든 상황에서 단월을 구하지 못한 많은 사찰들은 寺勢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헌덕왕·흥덕왕 시기의 신라에서는 홍수, 대설,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정도가 심하여 백성들이 굶어 죽고 역병으로 죽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도적이 봉기한 것도 몇 차례다. 『삼국사기』의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헌덕왕·흥덕왕 시기의 기상 이변과 사회 현상

헌덕왕 6년(814) 5월	홍수	
헌덕왕 7년(815) 5월	눈이 내림	
헌덕왕 7년(815) 8월	기근	도적이 봉기함
헌덕왕 8년(816) 정월	기근	
헌덕왕 9년(817) 5월	가뭄	

54) 광승훈, 앞의 논문, 2002, 251쪽.

헌덕왕 9년(817) 10월	굶어 죽음	
헌덕왕 12년(820) 봄여름	가뭄	
헌덕왕 12년(820) 겨울	굶주림	
헌덕왕 13년(821) 봄	굶주림	자손을 팔 지경
헌덕왕 13년(822) 12월	우레	
헌덕왕 14년(823) 2월	눈이 5자, 나무 시듦	
헌덕왕 15년(824) 7월	눈이 내림	
흥덕왕 2년(827) 5월	서리가 내림	
흥덕왕 2년(827) 8월	도읍 가뭄	
흥덕왕 3년(828) 3월	눈이 3자 내림	
흥덕왕 6년(831) 정월	지진	
흥덕왕 7년(832) 여름	가뭄	
흥덕왕 7년(832) 8월	굶주림	도적 봉기
흥덕왕 8년(833) 봄	대기근	
흥덕왕 8년(833) 10월	역병으로 많이 죽음	

자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만한 기근이 지속되었는데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미온적 대응에 민들은 생존을 위해 도적이거나 해적 되고, 먹을 것을 찾아 떠났다.<sup>55)</sup> 더욱이 흥덕왕이 죽고(836) 문성왕이 즉위하기까지(839) 국왕이 세 번이나 바뀔 만큼 중앙은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상황이 당시 불교계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불교 수용 이후 신라 조정에서 불교계에 무언가는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적이 거의 없다. 664년(문무왕 4) 사람들이 제멋대로 재화와 田地를 절에 보시하는 것을 국왕의 명으로 금지한 적이 있는데,<sup>56)</sup> 이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지 불교 세력의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원성왕 이후 정법전을 통해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불교계를 대하였고, 애장왕 이후로는 각종 금지 조

55) 이기봉, 「신라 헌덕·흥덕왕대의 재いと 정치·사회적 영향」, 『역사와경계』 100, 2016, 258~265쪽.

56)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4년.

치로 불교계에 대한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교계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9세기 전반 신라의 승려들은 불교계의 역사를 강조하며 집단 기억을 만들어갔다.<sup>57)</sup> 아도, 안홍(안함), 원효, 의상 등 신라 불교 수용 및 정착 초창기에 공이 많았던 인물에 대한 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sup>58)</sup>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차돈의 영험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를 추모하는 결사를 조직하고, 비석을 건립한 것은 남간사, 흥륜사, 백련사 승려들의 합작품이다. 그들은 9세기 들어 불교계의 지형이 달라졌음을 감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생존 전략을 모색한 것이었다. 즉 그들 사찰이 신라 불교의 수용과 관련 있는 유서 깊은 곳이며, 영험이 있는 곳이라고 표방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후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국가의 지원 없이도, 또는 국가의 견제 하에서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을 갖추고자 한 노력이었다. 이렇듯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구책을 강구한 사찰들이 살아남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9세기 전반, 특히 원화 연간에 만들어지는 사찰의 금석문들은 이러한 조성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불교 정책이 변화할 때, 사찰 스스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면서 역사와 영험을 강조하는 모습은,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四天王寺御手印緣起>를 예로 들어보겠다. 일본 오사카의 四天王寺는 오늘날 쇼토쿠대자가 세운 7개의 사찰 가운데 하나로 유명하다. 그런데 현재 기억하는 四天王寺의 사찰 역사는 1007년에 발견된 <四天王寺御手印緣起>에 근거한다. 여기에서는 쇼토쿠대자가 사천왕사의 수호를 맹세하면서 후대의 지배자들이 절을 수호하고 후원할 것을

57) 김기봉, 『내일을 위한 역사학 강의-21세기 역사학의 길을 묻다』, 문학과지성사, 2018, 64쪽,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기억이다.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야 집단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서사가 역사다. …… 개인에게 어떤 역사 서사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공동체 의식과 집단 정체성이 각인된다.”

58) 광승훈, 앞의 논문, 2002 참조.

당부하고, 절의 재산을 얻으려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다. 또한 쇼토쿠 태자는 앞으로 세대를 거듭하여 자신이 일본에서 덕망 있는 왕으로, 관료로 심지어 일반 백성으로 환생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 문서에 찍혀 있는 손도장이 쇼토쿠 태자의 친서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四天王寺御手印緣起>는 이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1007년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쇼토쿠 태자의 권위에 힘입어 사천왕사를 지키고자 했던 소속 승려들의 간절한 염원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일본은 10세기 말-11세기 초반의 院政期에 불교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국가에 의한 諸國의 불교 교화정책을 포기하여, 官寺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사찰들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는데, 興福寺, 東大寺를 제외한 南都의 사찰들은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9세기 전반 신라의 사찰들은 국가의 지원은 축소되고 진골들과의 결속을 막기 위한 견제가 강화되는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왕의 은덕을 칭송하고 사찰의 유구성과 영험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창작하고 이를 결사 등을 통해 집단 기억으로 만듦으로써 살아남고자 하였다. 이차돈 이야기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신이함이 더욱 강조된 형태로 널리 유포되게 되었다.

#### IV. 맺음말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등에 나오는 ‘이차돈의 죽음’은 신라 사회에 불교가 전래·수용된 과정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차돈에 관한 가장 빠른 시기의 기록은 817년에 만든 <백률사석당기>이고, 『삼국유사』에서도 元和 연간(806-820)에 승려 일념이 쓴 <축향분예불결사문>을 신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이차돈은 9세기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본 논문을 시작하였다. 이차돈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이차돈의 죽음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왜 9세기에 들어 신라 불교계에서 이차돈을 기억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비석에 새겼을까. 본문에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추적해보았다.

애장왕대(재위 801-809) 이후 동 시기에 이차돈뿐만 아니라 아도, 안홍(안함), 원효, 의상, 경흥, 승전 등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공인하는 과정에서 공이 많았던 인물이나 정착 단계에서 덕망이 높았던 고승을 기념하는 비석들이 많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신라 하대 들어 만들어진 고승을 주인공을 하는 비들은 왕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도 주인공의 영험한 자취나 국가와의 연관성, 국왕의 칭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사찰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지녔는지, 영험한 자취가 있는지, 국가에 어떠한 이바지를 하였는가를 선전함으로써 사찰의 후원 세력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라 하대 들어 조정은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갖추어가는 사찰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애장왕 이후에는 사찰의 신축을 금지하고, 사찰에서의 비단·금은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왕명은 사찰 세력이 왕족이 아닌 진골 세력과 결합하여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숨은 목적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불교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왕경의 사찰들, 그리고 지방의 사찰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 사찰의 역사와 영험을 내세울 만한 인물과 그들 둘러싼 이야기들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결사, 법회 등을 통해 사찰 공동체의 집단 기억으로 각인시켜나갔다. 원화 연간 이차돈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회자된 데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고대진, 「新羅 興德王代 金銀器 禁令의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9
- 곽승훈, 「신라 하대 전기 고승추모비의 건립」, 『한국고대사연구』 25, 2002
- 곽승훈, 「신라 하대 전기 흥륜사 금당 십성의 봉안과 미륵하생신앙」, 『한국사상사학』 11, 1998
- 곽승훈, 「신라 원성왕의 정법전 정비와 그 의의」, 『진단학보』 80, 1995
- 김동수, 「신라 헌덕·흥덕왕대의 개혁정치」, 『한국사연구』 39, 1984
- 남동신, 「천궁(天宮)으로서의 석굴암(石窟庵)」,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2014
- 문경현, 「新羅佛敎肇行攷」,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4, 1983
- 박남수, 「통일신라 사원성전과 불사의 조영체계」, 『동국사학』 28, 1994
- 박광연, 「불국토」, 『테마한국불교 3』, 동국대출판부, 2015
- 박광연, 「불교 정책과 중단 : 조선은 고려와 다르다」, 『역사비평』 123, 2018
- 박방룡, 「신라 왕경의 사찰조영」, 『미술사학』 13, 1999
- 신선혜, 「원성왕대 정법전의 개편과 정법치국의 이념」, 『신라사학보』 43, 2018
- 신종원, 「신라의 불교 전래와 그 수용과정에 대한 재검토」, 『백사학보』 22, 1977
- 深津行徳, 「아시아에서의 초기 불교수용의 諸相-흥륜사창건설과 이차돈 순교의 의미」, 『신라문화』 20, 2002
- 이영호, 「신라 중대 왕실사원의 관사적 기능」, 『한국사연구』 43, 1983
- 윤선태, 「신라의 사원성전과 금하신」, 『한국사연구』 108, 2000
- 윤선태, 「신라 중대의 성전사원과 국가의례」,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3, 2002
- 이근직, 「신라 왕경의 형성과정과 사원」, 『동악미술사학』 11, 2010
- 이기동, 「신라금입택고」,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 이기백, 「삼국시대의 불교 전래와 그 사회적 성격」, 『역사학보』 6, 1954
- 이기봉, 「신라 헌덕·흥덕왕대의 재이와 정치·사회적 영향」, 『역사와경계』 100, 2016
- 이도흠, 「이차돈 관련 기사의 비교 분석 및 맥락적 해석」, 『한국불교학』 85, 2018

- 이병도, 「신라 불교의 침투 과정과 이차돈 순교 문제의 신고찰」, 『학술원논문집』 14, 1975
- 이봉춘, 「홍륜사와 이차돈의 순교」, 『신라문화』 20, 2002.
- 채상식, 「신라통일기 성전사원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경계』 8, 1984
- 최광식, 「이차돈설화에 대한 신고찰」, 『韓國傳統文化研究』 1, 1985
- 최홍조,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목간과 문자』 11, 2013
- 황수영, 「石窟庵의 創建과 沿革」, 『역사교육』 8, 1964

## Inventing the Image of the Marvelous Sanctuary of Baengnyulsa (栢栗寺)

- Change of the Buddhism Policy in the 9<sup>th</sup>Century  
and its Effect on the Buddhist Temple

Park, Kwang-youn

The martyrdom of Lee Cha-don recorded in various texts such as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mguk sagi 三國史記),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amguk yusa 三國遺事) and Biographies of Eminent Korean Monks (Haedong goseungjeon 海東高僧傳) is always mentioned to explain how Buddhism was introduced and accommodated in the Silla dynasty. However, the earliest record about his martyrdom is “Record on the Stone Pillar of Baengnyulsa (栢栗寺石幢記)” in 817 (or 818). “Invitation to the Group of Worshipping Buddha at the Tomb of Yeomchok (靑香墳禮佛結社文)” in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is also written by Lillyeom (一念) during the years of Yuanhe (元和 806-820). That is, the image of Lee cha-don we all recognize today was created in the 9<sup>th</sup> century. Even though Lee cha-don was a real person and his martyrdom happened, why did people of Silla perform the practice and erect a stone pillar to commemorate Lee cha-don in the 9<sup>th</sup> century? This research is to analyze its historical background.

After the reign of King Aejang (r. 801-809), many epitaphs for Silla’s



eminent monks of Ado (阿道), Anheung (Anham 安含, ?-?), Wonhyo (元曉, 617-686), Uisang (義相, 625-702), Gyeongheung (憬興), Seungjeon (勝詮) as well as for Lee cha-don in the early period of accepting Buddhism were erected. The inscriptions on them commonly emphasize the monks' connection with the ruler or dynasty, and their marvels. Even though "Record on the Stone Pillar of Baengnyulsa" was not written under the royal order, the record underlined the dignity of kings and the contribution of Buddhism in the process of 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s, Buddhism policy was strictly enforced in the reign of King Aejang, Heondeok and Heungdeok of the 9<sup>th</sup>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t is assumed that Buddhist temples including Baengnyulsa put emphasis on the Lee cha-don's marvel and Buddhist virtuous acts in the 9<sup>th</sup> century as an effort to save themselves under Silla's tight policy on Buddhism.

**keywords :**

9<sup>th</sup> century, Silla Buddhism, Baengnyulsa (栢栗寺), Lee cha-don, King Aejang, Record on the Stone Pillar of Baengnyulsa, Buddhism policy

